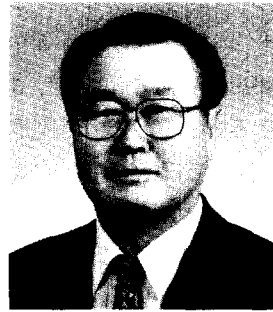


# 記 念 辭



변승봉  
(대한전기학회 회장)

神 士淑女여러분!  
먼저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하시고 역삼동 높은 언덕을 올라오셔서 大韓電氣學會 創立 50周年을 祝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公務에도 不拘하시고,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科學技術處 강광남 국장님과 韓國電力 李宗勳 社長님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大規模의 慶祝使節을 모시고 오신 日本電氣學會 正田英介(MASADA EISUKE) 會長님, 中國電機工程學會(CSEE) 張鳳祥(ZHANG FENGXIANG) 理事長님, 中國電工技術學會 賴堅(Lai Jian) 副理事長님에게 멀리 韓國에까지 오셔서 祝賀해 주심에 심심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國內의 저명한 學會會長님들, 우리 電氣學會의 元老 會長님들, 그리고 오늘의 이 行事를 많이 後援하여주신 企業體 代表님들께도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內外賓 諸君여러분!  
그리고 7,300 會員 여러분!

우리 大韓電氣學會는 지난 50年 동안 會員님들의 노고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그리고 한국전력 등 相關기관 的 支援助으로 지금은 7,300余 會員과 國內外에 13個 支部, 12個 研究會에서 年間 1,400余 編의 優秀 論文을 發表하고 가까이로는 日本電氣學會, 中國의 兩大電機電工學會와 相互協力을 긴밀히 推進하며, 멀리로는 IEEE, IEC, CIRGE 등과도 國際的 交流를 推進하고 있는 名實相符한, 우리 나라 科學技術을 先導하는 代表學會로 發展하였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事實 우리 電氣學會의 50年史를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의 歷史와 같이, 시련과 苦難, 그리고 成功의 歷史였습니다.

8.15 光復과 더불어 겪어야 했던 思想的 對立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自由民主主義와 產業施設을 守護하신 先輩님들의 高貴하신 결의와 艱苦정신은 지금도 後輩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北韓의 돌연한 斷電으로, 순식간에 産業施設은 잊어버리고 암흑세계로 변하였던 참담한 경험은 오히려 6.25의 잿더미를 復舊하면서 하늘을 찌를 듯한 意慾으로 불타올라, 20만 kW도 채 못되었던 南쪽의 電源設備를, 지금은 4000만kW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욱이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原子力發展所 安全운전실적과 한국형 原子力發展所의 設計, 製作, 建設의 一貫技術을 모두 自立하게 되었음은 勿論, 中國과 東南亞에 技術支援도 始作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電機工業은 昨年에 169億弗 상당을 生産하고, 55億弗을 수출하여 世界 萬邦에서 우리의 技術이 인정받고, 民間外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學問과 産業이, 이제는 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 競爭하는 水準으로 發展하였으니, 苦生을 樂으로 삼으셨던 先輩님들께서도 매우 대견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過去事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21世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더욱 번영하는 祖國과 완벽한 先進國 進入을 爲하여 研究와 技術開發에 더욱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젊은 人材들이 꿈과 vision을 가지고 우리의 學問에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첨단분야에 대한 投資도 과감히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서 學界는 産業이 必要로 하는 核心기술을 研究하고, 産業은 적극적으로 學界를 끌어안는 相互依存과 協同體制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電氣工學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왔듯이 앞으로도 永遠히 人類의 文化生活을 위해 공해를 추방하고, 깨끗한 地球環境을 保存하는 청정 Energy 供給을 위해 日本과 中國 等 인접국과의 協力を 強化하고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集結합시다.

존경하는 內外貴賓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학회 50주년을 축하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회의 持續的인 發展을 위해 변함없는 指導와 편달을 계속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記念辭를 마칩니다.

1997년 7월 9일

대한전기학회장 변 승 봉